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과 시사점

North American sport pedagogy research trends and implications

홍덕기(경상대학교) · 류태호*(고려대학교)

Hong, Deock-Ki(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Yu, Tae-Ho (Kore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orth American sport pedagogy research trends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sport pedagogy research.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elected sport pedagogy research trend articles(N=12) were analyzed for 1970s to mid-2000s research trends. In addition, a total of 605 sport pedagogy research articles from JTPE, RQES, and QUEST were analyzed for 2007-2017 research trend. **Results:** North American sport pedagogy research trends were categorized on 1970s, 1980s, 1990s-mid 2000s, and 2007-2017. Each category was analyzed by research themes, theoretical backgrounds, and research methods. Lastl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sport pedagogy research were discussed. **Conclusion:**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re were meaningful results for sport pedagogy research trends to consider for future research in South Korea.

Key words : North American sport pedagogy, research trends, theoretical backgrounds, research methods

I. 서론

한 학문을 대표하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은 그 학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변해왔다. 따라서, 학문의 발전과정을 탐색하는데 최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일은 그 학문의 지식구조가 어떻게 변해가는 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적작업이다(Graber, 2001; Lee & Solmon, 2005; Silverman, 2005).

스포츠교육학은 체육학의 다른 분과학문들에 비해 그 역사가 길지 않으며 전통적으로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강신복, 2003, 2009; 강신복, 최의창, 1991, 1996, 1997; 최의창, 2003; Boyce, Lund, & O'Neil,

2015; Lee & Solmon, 2005; Silverman, 1991). 1980년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RQES) 학술지 50주년 체육학 연구현황에서 스포츠교육학은 체육학문의 한 분야로 포함되지 못했지만, 1981년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JTPE)이 발행되고, 2001년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4판에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이 발표되면서 일반교육학에서도 스포츠교육학이 학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Graber, 2001, Safrit, 1980).

국내 스포츠교육학은 1970년대 후반부터 스포츠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이 배출되고, 스포츠교육학 전공 미국 유학과 학자들이 증가하였으며, 1994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의 발행으로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강신복, 2009; 강신복, 최

* Corresponding author: Yu, Tae-Ho(sport386@korea.ac.kr)

의창, 1996, 1997; 신기철, 2011; 안양옥, 1992, 1994, 2009). 초창기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다룬 연구로 강신복, 최의창(1996)은 스포츠교육학의 성장배경이 된 체육학문화 운동을 소개하고 스포츠교육학의 연구 성과를 1) 운동기능습득, 2) 기술 및 분석, 3) 과정-결과, 4) 실제학습시간, 5) 교사사고과정, 6) 학생사고과정, 7) 교사지식, 8) 교사사회화, 9)교육과정의 아홉 가지 주제로 제시하고, 1) 현장과 이론의 괴리, 2) 연구패러다임 논쟁, 3) 학문적 종속성의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내 스포츠교육학이 걸음마 단계였던 당시 상황에서 스포츠교육학 연구주제를 범주화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연구주제가 양적자료에 근거해서 분석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주로 1970-80년대 연구흐름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후, 김승재(2000)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와 한국체육학회지에 발표된 137편의 스포츠교육학 연구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중심의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사교육연구가 대부분임을 밝혀냈다. 또한, 김문규, 윤명희(2001)는 1981년부터 1999년 사이에 국내외에서 출판된 체육교수 연구 273편(국내 55, 국외 218)과 체육교육과정 연구 127편(국내 26, 국외 101)을 키워드로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김승재(2000)의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했다. 이들 연구는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를 포함하고 학술지 및 데이터베이스의 스포츠교육학 관련 키워드에 근거해서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료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후반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안타깝게도 최근 스포츠교육학의 연구흐름을 정리한 국내 논문은 두 편에 불과하다(이한주, 손나래, 이태구, 2015; 장병권, 채창목, 김영식, 2017). 먼저, 이한주, 손나래, 이태구(2015)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와 체육과학연구 스포츠교육학 관련 논문 341편을 분석한 결과, 체육수업, 교육과정, 교사교육, 신체활동, 실행연구, 체육교사, 학생선수,

학교스포츠클럽 순으로 연구가 진행됨을 보고했다. 이는 최근 연구주제가 보다 다양화되고 있음을 계량서지학적(bibliometric) 분석방법과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최근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배제하고, 국내 연구흐름만을 두 학술지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편, 장병권, 채창목, 김영식(2017)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한국초등체육학회지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게재된 연구를 분석하여 초등체육교육학의 연구동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초등체육이라는 주제에 한정하고,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배제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종합하면, 스포츠교육학의 연구현황을 다룬 연구들은 소수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2000년대 중반이후 최근의 스포츠교육학 연구흐름을 정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강신복, 최의창, 1996; Graber, 2001; Kulinna, Scrabis-Fletcher, Kodish, Phillips, & Silverman, 2009; Lee & Solmon, 2005).

2000년대 이후부터는 인터넷의 발달과 스포츠교육학자들 간 국제교류의 활성화, 해외유학과 학자들의 지속적 증가로 스포츠교육학 연구가 보다 국제화,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최신 경향을 탐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의 전 세계적 흐름을 한 논문에 담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가 초창기 스포츠교육학 전공 미국 유학과와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논의를 중심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교육학의 여러 국제적 흐름 중 북미 스포츠교육학의 연구경향에 한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시대별 흐름(1970-2006)을 분석한 주요 연구들을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최근 10년(2007-2017)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관련 논문을 분석하여 최신 연구경향을 파악하며,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

해, 2장에서는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위한 자료선정 과정과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절차에 대해 다룬다. 3장에서는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분석한 주요 선행연구 결과들을 요약한 후, 1970년대부터 2006년까지 1970년대, 1980년, 1990-2000년대 중반의 세 시기별로 연구경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발표된 북미 스포츠교육학 관련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영역별 주제 및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이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본 논문이 스포츠교육학의 학문적 지식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향후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토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자료선정 및 수집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선정 과정은 두 단계를 거쳤다. 첫째, 기존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정리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선정 기준은 북미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북미와 국내 대학 모두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 재직 경력이 있는 학자 한 명과 국내 대학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로 15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학자 한 명, 총 두 명이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시대별로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판단되는 논문들을

표 1. 1970-2000년대 중반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 선행연구

년도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1986	Placek & Locke	Research on teaching physical education: New knowledge and cautious optimism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1987	Schempp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Beyond the limits of natural science	JTPE
1991	Silverman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RQES
1997	Silverman & Skonie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An analysis of published research.	JTPE
2001	Graber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2002	Macdonald et al.	It's all very well, in theor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their applications in contemporary pedagogical research	QUEST
2003	Silverman & Manson	Research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A detailed investigation of focus, method, and analysis.	JTPE
2005	Lee & Solmon	Pedagogy research through the years in RQES	RQES
2006	Ward & Ko	Publication trends i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JTPE
2007	Rink	What knowledge is of most worth? Perspectives on kinesiology from pedagogy	QUEST
2009	Kulinna et al.	A decade of research literature in physical education pedagogy	JTPE
2012	Hemphill et al.	A content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from 1998 to 2008	JTPE

각자 선정된 후, 선정된 논문을 읽고 <표 1>과 같이 상호 합의된 논문 총 12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두 연구자가 JTPE, RQES, QUEST 세 학술지에 최근 10년간(2007-2017) 발표된 스포츠교육학 관련 연구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할분담의 경우, 북미대학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경험이 있는 주 연구자가 자료 수집을 주로 담당하였고, 자료 분석과 결과기술의 경우, 두 연구자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학술지의 질을 평가할 때는 논문인용지수(impact factor), 학술지 게재율, 학술지 역사 등의 객관적 평가와 함께, 학술지에 대한 동료평가, 학술지 편집위원의 대표성, 학술지발간 형태 등의 주관적 평가가 같이 고려된다(Kulinna et al., 2009). 최근 Silverman 등(2013)은 스포츠교육학 관련 학술지의 질에 대한 스포츠교육학전공 교수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JTPE, RQES와 QUEST 학술지는 고루 높게 평가되었다(Silverman, Kulinna, & Phillips, 2014; Zhu, 2013). 또한, JTPE와 RQES는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아왔다(Chen & Zhu, 2001; Silverman &

Skonie, 1997; Ward & Ko, 2006). 한편, QUEST의 경우, 체육학 일반 학술지 중에서 스포츠교육학 관련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JTPE와 RQES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스포츠교육학의 연구관점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된다(Kulinna et al., 2009).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수집 대상으로 JTPE, RQES, QUEST의 세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각 학술지에서 수집된 자료는 <표 2>와 같다. 첫째, JTPE 2007년 26권 1호부터 2017년 36권 4호까지 발표된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다. 다만, 편집자 주, 만회를 위한 리뷰(retrieval review), 오자수정공고(erratum) 논문은 제외하고 총 334편을 자료 분석에 사용했다. 둘째, RQES 2007년 78권 1호부터 2017년 88권 4호까지 발표된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다. 다만, 편집자 주, SHAPE America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초록이 실린 부록은 제외하였고, 2010년 81권 3호 부록에 수록된 텍사스 청소년체력측정평가 특별호, 2013년 84권 2호 부록에 수록된 중국 청소년 체력측정평가 특별호, 2015년 86권 1호 부록에 수록된 헝가리 청소년 체력측정평가 특별호, 그리고 2016년 독일에서 주최한 이해중심게임수업 학회 특별호 역시 제외하였다.

표 2. JTPE, RQES, QUEST 스포츠교육학 관련 논문 (2007-2017)

	JTPE	RQES		QUEST	
		스포츠교육학 논문	총 논문	스포츠교육학 논문	총 논문
2007	22	7	57	9	32
2008	37	11	61	10	32
2009	23	9	89	9	32
2010	24	10	61	9	31
2011	26	15	91	10	32
2012	23	13	72	10	26
2013	26	14	57	16	34
2014	31	25	59	13	35
2015	41	13	46	12	32
2016	37	11	46	12	39
2017	44	19	54	14	34
합계	334	147(21.2%)	693	124(34.5%)	359

RQES는 체육학 종합지이므로 스포츠교육학 연구를 따로 수집하는 작업을 거쳤다. 2007-2012년까지는 각 분과학문별로 표시가 있으므로 스포츠교육학 분과에 발표된 논문을 포함하고, 스포츠교육학 분과가 아닌 다른 분과 혹은 특별이슈나 초청논문의 경우에도 각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스포츠교육학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논문은 두 명의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가 상호 합의 후 자료수집에 포함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따로 분과학문별 표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발표된 모든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스포츠교육학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논문을 두 연구자가 상호합의 후 자료수집에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693편의 논문 중 147편을 자료 분석에 사용했다.

셋째, QUEST의 경우, 2007년 59권 1호부터 2017년 69권 4호까지 발표된 논문을 전수 조사하였다. QUEST 역시 체육학 종합지이므로 두 명의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가 스포츠교육학 영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각자 선정 후, 토론을 통해 상호합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결과적으로 총 359편 중 124편을 자료 분석에 사용했다.

2. 자료 분석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의 시기 구분은 그 동안 연구경향을 분석해온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1970년대, 1980년대, 1990-2000년대 중반, 2007-2017년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Hemphill, Richards, Templin, & Blankenship, 2012; Silverman & Skonie, 1997; Ward & Ko, 2006).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연구경향을 분석해왔고, 본 논문에서도 이를 따르고자 하였다. 다만, 2007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2000년대 중반까지 연구경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를 같이 분석하고 있고, 가장 최근 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의 연구경향이 2007년부터 시작되는 걸 고려하여 본 논문에

참여한 두 연구자가 서로 합의하에 결정하였다.

먼저, 1970년대, 1980년대, 1990-2000년대 중반 세 시기의 경우 기존 북미 스포츠교육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총 12편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3장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의 경우, JTPE, RQES, QUEST 학술지에 2007-2017년 발표된 총 1386편의 논문 중 스포츠교육학 관련 총 605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최종분석대상 논문파일은 서지검색 소프트웨어인 Mendeley에 업로드하고 논문제목, 저자, 발표연도, 키워드, 초록, 학술지 제목을 함께 입력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선정된 모든 논문을 두 명의 연구자가 제목, 키워드, 초록을 중심으로 각각 1차 분류목록을 작성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분류한 결과가 상이한 논문의 경우는 해당 논문의 전체를 다시 읽어가며 내용을 분석한 후, 토론 및 상호 합의하는 2차 분류과정을 거쳤다. 이 후, 시대별로 연구주제, 연구관점, 연구방법의 세 가지 분석 틀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Hemphill, Richards, Templin, & Blankenship, 2012; Rhodes, Woods, Daum, Ellison, & Trendowski, 2016; Silverman & Skonie, 1997). 최종 분석된 자료는 국내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제 3의 학자와 함께 자료검증 과정을 거쳤다.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은 선행연구가 보고된 적이 없다는 점과 최근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장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Ⅲ. 시대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1970-2000년대 중반)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시대별로 파악하기 위해 선정한 총 12편의 논문 중 대표적인 연구로는 2005년 RQES 학술지 발간 75주년을 기념하며 체

육학의 각 분과학문별 발전현황을 다룬 특별 호에 출판된 Lee와 Solmon(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Lee와 Solmon(2005)은 1930년대부터 2005년까지 75년간 발표된 체육교육 연구물들을 교수학습, 교육과정, 교사교육의 세 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다(Lee & Solmon, 2005). 이들에 따르면, 1930년대 연구주제는 주로 체조를 비롯한 체력훈련에 집중되었다. 그 후, 1940-60년대는 체조 및 체력중심에서 게임과 스포츠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로 주제가 다양화 되었다. 이 당시는 스포츠교육학이 체육학의 분과학문으로 인정받기 전이었고, 학교체육 연구는 간단한 수업관찰, 행동분석, 혹은 문헌분석을 통한 리뷰연구가 주류였다. 이 시기는 교수효율성과 관련하여 좋은 체육수업의 특징을 발견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연구방법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스포츠교육학이 체육학 내에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건 미국을 중심으로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과정이 개설되고 전공 관련 교수들이 전문 학술지를 준비하던 197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Graber, 2001; Silverman & Manson, 2003).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제시한 선행연구 총 12편을 분석하여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1. 1970년대

1970년대는 체육학문화 운동으로 인한 운동학습, 운동생리학 등 분과학문의 발달로 학교체육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화되었다(Anderson & Barrett, 1978; Silverman, 1991). 예를 들어, Silverman(1991)은 1970-80년대 수행된 스포츠교육학 연구문헌을 교수효율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에 따르면, 초창기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은 체육수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찰하려는 노력에 입각해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려는 실증주의(positivist)가 이론적 자원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1970년대 컴퓨터와 통계의 발달로 인한 과학화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양적연구 전통이 확립되기 시작했다(Silverman, 1991).

따라서, 체육수업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려는 노력에 따라 운동기능습득, 실제학습시간, 교수효율성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Anderson & Barrett, 1978; Lee & Solmon, 2005; Silverman, 1991). 이러한 관점은 체육교사가 효율적으로 수업을 관리하고 운동기능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수효율성을 높이며 학교체육수업의 효과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Anderson & Barrette, 1978).

2. 1980년대

1970년대까지 주로 양적연구에 기반한 연구들은 교육현장의 복잡성 및 다양성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는 실증주의 관점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석주의(interpretative) 관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Placek & Locke, 1986; Schempp, 1987). 해석주의 관점은 문화기술지를 비롯한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으로 학교체육현장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자원을 마련해주었다. 방법론적으로는 양적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문화기술지를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통해 학교체육현상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Griffin, 1985; Locke, 1989; Schempp, 1987). 따라서, 1980년대는 교수효율성이 학습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과정-결과연구를 비롯해 교사교육과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고, 교사의 효율적 지도가 학생의 학습에 효과적임을 밝혀내었다(Placek & Locke, 1986; Rink, Werner, Hohn, Ward, & Timmermans, 1986).

하지만, 1980년대까지도 여전히 양적 연구방법과 운동기능 및 운동학습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Silverman과 Skonie(1997)는 1980년

부터 1994년까지 발표된 2,700편의 논문 중 체육교수와 관련된 논문 179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 주제, 대상, 관찰도구, 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방법은 대부분이 관찰 도구를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67%)으로 수행되었다. 전체 분석한 논문 중 출판형태는 JTPE(47.2%)와 RQES(12.9%)에 실린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연구주제는 대부분이 운동기능습득에 초점을 둔 효율성에 관한 연구(85.5%)였다(Silverman & Skonie, 1997). 또한, Silverman과 Manson (2003)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출판된 스포츠교육학 관련 박사학위논문을 분석한 결과 연구주제의 대부분이 운동 학습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3. 1990-2000년대 중반

1990년대는 교사의 사고과정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Graber, 2001; Lee & Solmon, 2005). 교사 사고과정 연구는 교사지식(Rovegno, 1998), 교사의 가치 및 신념(Ennis & Chen, 1995), 수업계획 및 상호작용(Griffey & Housner, 1991), 체육수업모형(Metzler, 2011)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성과 들을 만들었다. 특히, 수업모형에 기반한 교수법(model-based instruction)은 체력모형(Corbin & Le Masurier, 2014), 스포츠교육모형(Siedentop, Hastie, & van der Mars, 2004), 책임감모형(Hellison, 2011), 이해중심게임수업모형(Mitchell, Oslin, & Griffin, 2005)등 체육교수방식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2000년대부터는 교사중심에서 학생사고과정을 주제로 한 학생중심으로 연구주제가 확장되었다(Silverman & Ennis, 2003). 즉, 교사교육에서 학생이 체육수업에서 어떻게 운동기능 및 지식을 학습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Devis-Devis, 2006; Ennis, 2006, 2010, 2015; Penney & Evans, 1999; Silverman & Ennis, 2003). 따라서, 학생사고과정을 주제로 성취목표이론, 인지된 유능감이론, 자기효능감이론, 기대-가치이론, 자기결정이론, 구성주의이론, 개념변화이론 등을 활용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Ennis, 2017; Kirk, Macdonald, & O'Sullivan, 2006; Lee & Solmon, 2005; Rink, 2007).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의 비판과 건강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학생들의 중·고강도 신체활동(MVPA)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커지면서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초점을 둔 학교기반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프로그램의 중재효과를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었다(Ennis, 2007, 2011; McKenzie & Lounsbury, 2013; Rink, 2012).

Kulinna 등(2009)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94개 저널에서 발표된 1,819편의 스포츠교육학 관련 연구들을 분석했다. 먼저, 저널형태를 분석한 결과, 체육교육 관련저널(56.40%), 체육학저널(30.02%), 일반교육 및 사회과학저널(9.35%), 그리고 보건교육 및 의학저널 순(4.23%)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교육학 전문 학술지에서는 JTPE(14.38%)와 Physical Educator(9%)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체육학 일반 학술지 중에서는 Quest(6.75%)와 RQES(4.01%)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교수학습, 교사교육, 교육과정, 교사전문성 등이 주로 보고되었다.

2000년대 초반 Macdonald 등(2002)은 스포츠교육학 연구에 사용되어온 주된 이론적 관점을 실증주의, 해석주의, 사회비판주의, 후기구조주의, 그리고 페미니스트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여 정리하였다(Macdonald, Kirk, Metzler, Nilges, Schempp, & Wright, 2002). 이 시기 이론적 자원으로는 기존의 실증주의와 해석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비판적 패러다임을 통해 전통적 스포츠중심 체육수업이 갖는 문제점을 젠더, 소외, 체육문화, 미디어 등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회비판주의적 관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Devis-Devis, 2006). 사회비판주의 관점은 학교체육상황에서 다양한 불평등과 사회 구조에서의 지배-피지배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러한 과정에서 소외받는 집단(운동기능이 낮은 학생, 여학생 등)에 주목했다(Graber, 2001; Macdonald et al.,

2002). 사회비판주의 관점에 기반한 연구들은 사회의 불평등적 구조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를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문제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Macdonald et al., 2002).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후기구조주의 관점과 페미니스트 관점 등이 생겨나며 보다 다양한 이론적 자원들로 스포츠교육학의 연구 주제를 분석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Hamphill et al., 2012; Kulinna et al., 2009).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1990년대 이후 근거이론, 사례연구, 생애사 연구, 비주얼 문화기술지 등 다양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또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하여 각 연구방법의 단점을 상호보완 한 혼합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Chen과 Zhu(2001)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JTPE와 RQES에 발표된 295편의 스포츠교육학 연구들을 방법론별로 분석한 결과, 41%가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Ward와 Ko(2006)는 1981년부터 2005년까지 JTPE에 발표된 논문들의 경향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40%), 질적연구(18%), 그리고 혼합연구(6%)순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여성학자와 국제논문의 발표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Hemphill과 동료들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JTPE에 발표된 110편의 질적연구(혼합연구 38.2%포함)의 내용을 분석했다(Hemphill, Richards, Templin, & Blankenship, 2012). 연구결과, 질적연구 형태, 연구초점, 이론 틀, 자료수집방법, 연구의 진실성,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 있어서 질적연구의 사용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IV. 최근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2007-2017년)

본 장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의 연구경향을 JTPE, RQES,

QUEST에 실린 스포츠교육학 관련 논문 총 605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영역별 주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1. 영역별 주제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영역별 주제에 따른 분류는 <표 3>과 같다. 연구영역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1) 교수학습, 2) 교육과정, 3) 교사교육을 기준으로 하였고, 자료분석 과정에서 4) 이론정립 영역을 추가하였다(Graber, 2001; Lee & Solmon, 2005).

첫째, 교수학습 영역은 총 427편으로 전체 논문의 70.6%를 차지했으며 1) 학생/청소년, 2)교수학습방법, 3) 교사/코치, 4) 측정평가의 4개 중주제로 분류되었다. ‘학생/청소년’ 연구는 ① 학생동기, ② 체육수업 및 교사에 대한 인식, ③ 기타의 3가지 소주제로 분류되었다. ‘교수학습방법’ 연구는 ① 체육수업 모형, ② 그 외의 교수학습방법으로 분류되었다. ‘교사/코치’ 연구는 ① 신념/인식, ② 사회화, ③ 내용지식으로 분류되었다. ‘측정평가’ 연구는 ① 신체활동/체력측정, ② 측정도구개발, ③ 체육수업 평가로 분류되었다.

둘째, 교사교육 영역은 총 110편으로 전체 논문의 18.2%를 차지했으며 1) 예비 교사교육, 2) 현직 교사교육, 3) 대학원 프로그램, 4) 교사교육 연구자로 분류되었다. 셋째, 교육과정 영역은 총 45편으로 전체 논문의 7.4%를 차지했으며, 1)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2) 교육과정 문서분석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론정립 영역은 총 23편으로 전체 논문의 3.8%를 차지했으며 1) 특정 연구주제 분석, 2) 방법론고찰, 3) 전체연구 경향리뷰로 분류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북미 스포츠교육학 논문을 연구주제 빈도별로 1-10 순위까지 분류해보면, 1) 학생동기, 2) 수업모형, 3) 예비교사교육, 4) 학생인식, 5) 신체활동 및 체력측정, 6) 교사신념 및 인식, 7) 교수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과 시사점

표 3. 최근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주제(2007-2017)

영역	중주제	소주제	JTPE	RQES	QUEST	합계
교수학습	학생/청소년	동기	57	15	29	101 (16.7%)
		인식	23	13	11	47 (7.8%)
		기타	5	5	4	14 (2.3%)
		학생/청소년 합계	85	33	44	162 (26.8%)
	교수학습 방법	수업 모형	53	26	6	85 (14.0%)
		기타	17	12	4	33 (5.5%)
		교수학습방법 합계	70	38	10	118 (19.5%)
	교사/코치	신념/ 인식	12	8	14	34 (5.6%)
		사회화	12	6	9	27 (4.4%)
		내용 지식	13	5	3	21 (3.5%)
		교사/코치 합계	37	19	26	82 (13.6%)
	측정평가	신체활동/체력 측정	18	9	12	39 (6.4%)
		측정도구 개발	6	8	0	14 (2.3%)
		체육수업 평가	5	7	0	12 (2.0%)
		측정평가 합계	29	24	12	65 (10.7%)
교수학습 합계			221	114	92	427 (70.6%)
교사교육	교사교육	예비 교사교육	41	7	6	54 (8.9%)
		현직 교사교육	10	9	4	23 (3.8%)
		대학원 프로그램	9	3	8	20 (3.4%)
		교사교육 연구자	6	3	4	13 (2.1%)
교사교육 합계			66	22	22	110 (18.2%)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개발/적용	29	4	0	33 (5.4%)
		교육과정문서 분석	7	2	3	12 (2.0%)
	교육과정 합계		36	6	3	45 (7.4%)
이론정립	이론정립	특정 연구주제분석	7	2	4	13 (2.1%)
		방법론고찰	2	3	2	7 (1.2%)
		전체연구 경향 리뷰	2	0	1	3 (0.5%)
이론정립 합계			11	5	7	23 (3.8%)
전체 합계			334	147	124	605

학습방법, 8)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9) 교사사회화, 10) 현직교사교육 순이었다. 10순위까지 나열된 연구주제 중 교수학습 영역 내 소주제가 총 7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제의 비율이 낮더라도 각 학술지별로 관련 연구주제들이 비교적 고르게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교육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최신 스포츠교육학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다룬 저서들이 출판되었다(Azzarito & Kirk, 2013; Ennis, 2017; Kirk, Macdonald, & O'Sullivan, 2006). 첫째, 2006년 57명의 스포츠교육학 연구자가 참여하여

집필한 SAGE 스포츠교육학 핸드북의 출판은 스포츠교육학의 지식구조를 공고히 하였다(Kirk, Macdonald, & O'Sullivan, 2006). 이 책은 스포츠교육학을 이론적 관점(해석학, 사회비판연구,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등), 간학문적 접근(철학,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공중보건학 등), 학습자(구성주의, 학생인지, 상황학습, 학생문화 등), 교사(교수스타일, 교사신념, 코칭, 교사교육정책 등), 교육과정(교수기반모델, 교육과정구성 등), 다양성(인종별, 성별, 계급, 장애, 남성성 등)의 총 6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45장에 걸쳐 관련연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2013년 Azarito와 Kirk가 편집해서 출판한 ‘Pedagogies, Physical Culture, and Visual Methods’는 학생의 몸담론과 신체문화를 비주얼방법론을 사용하여 교육사회학 및 비판적 교육학 관점에서 분석하는 최신 연구경향을 담고 있다(Azzarito & Kirk, 2013).

셋째, 2017년 Routledge 스포츠교육학 핸드북이 출판되었다(Ennis, 2017). 이 책은 61명의 스포츠교육학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스포츠교육학을 총 9개의 섹션으로 구분하고 체육교육연구, 교육과정이론, 교육과정정책, 특수체육, 변혁적 교육, 수업 분석, 교사 효율성, 학생의 역할, 성취동기 등의 주제별로 나누어 44장에 걸쳐 최근 스포츠교육학 연구현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하면, 최근 10년 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는 학생의 동기 및 인식을 비롯한 학생중심 연구, 증거에 기반한 신체활동향상 및 건강 체력 연구 등이 두드러졌고, 연구주제가 다양화되었다. 또한, 체육수업모형, 교사의 신념 및 인식과 교사사회화, 교사내용지식과 관련한 연구도 전통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따른 분류는 <표 4>와 같다. 이론영역은 크게 1) 동기이론, 2) 학습이론, 3) 사회학이론, 4) 기타이론, 5) 이론적 배경을 2개 이상 제시한 연구, 6)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 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연구는 총 437편으로 전체 연구의 72.2%를 차지하였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동기이론이었고, 그 다음으로 학습이론, 사회학 이론, 이론적 배경을 2개 이상 제시한 연구, 기타 이론 순이었다.

첫째, 동기이론 영역은 1) 자기결정 이론, 2) 사회

인지 이론, 3) 성취목표 이론, 4) 계획된 행동 이론, 5) 기대-가치 이론, 6) 자기 효능감 이론, 7) 자기조절 이론, 8) 기타 동기 이론, 9) 태도 이론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둘째, 학습이론 영역은 1) 구성주의 이론, 2) 사회생태 이론, 3) 상황학습 이론, 4) 기타 학습 이론, 5)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 6) 문화적 유능감 이론, 7) 교수를 위한 학습 이론, 8) 교사인식 이론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셋째, 사회학 이론 영역은 1) 직업사회화 이론, 2) 교사직업 발달 이론, 비판 이론, 기타 사회학 이론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 외에 이론적 배경을 2개 이상 제시한 연구는 5.3%를 차지했고,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27.8%를 차지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보다는 체육학의 전반적 이슈나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인 QUEST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QUEST를 제외하고 JTPE와 RQES만 분석하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논문은 오직 16.4%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는 대부분 학문적으로 검증된 이론적 자원을 배경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들이 이론적 배경이나 관점을 소홀히해온 경향을 비춰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경오, 이규일, 2013).

3. 연구방법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연구방법은 1) 양적연구, 2) 질적연구, 3) 혼합연구, 4) 문헌분석 연구의 4가지로 분류하였고, <표 5>와 같다.

첫째, 양적연구는 총 605편중 299편으로 전체논문의 49.4%를 차지했으며, JTPE와 RQES의 경우, 50% 이상의 비율로 양적연구가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문헌분석 연구가 158편으로 26.1%를 차지했으며, QUEST의 경우, 체육학계의 이슈나 철학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과 시사점

표 4. 최근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 이론적 배경(2007-2017)

영역	이론	JTPE	RQES	QUEST	합계
동기	자기결정	23	11	7	41 (6.8%)
	사회인지	16	10	2	28 (4.6%)
	성취목표	10	5	2	17 (2.8%)
	계획된행동	8	7	1	16 (2.8%)
	기대가치	9	5	2	16 (2.8%)
	자기효능감	10	4	0	14 (2.3%)
	자기조절	12	2	0	14 (2.3%)
	태도	3	1	2	6 (1.0%)
	기타 동기이론	7	5	0	12 (2.0%)
	동기 이론 합계	98	50	16	164 (27.4%)
학습	구성주의	26	9	3	38 (6.3%)
	사회생태	16	5	2	23 (3.8%)
	상황학습	12	7	2	21 (3.5%)
	사회적상호작용	9	8	0	17 (2.8%)
	문화적유능감	9	4	2	15 (2.5%)
	교수를 위한 학습	7	1	0	8 (1.3%)
	교사인식	3	2	0	5 (0.8%)
	기타 학습이론	12	8	1	21 (3.5%)
	학습 이론 합계	94	44	10	148 (24.5%)
사회학	직업사회화	26	4	2	32 (5.3%)
	교사직업발달	22	1	0	23 (3.8%)
	비판	3	4	2	9 (1.5%)
	기타 사회학이론	7	1	0	8 (1.3%)
	사회학 이론 합계	58	10	4	72 (11.9%)
기타 이론	10	7	4	21 (3.5%)	
이론 2개 이상 제시한 논문	16	13	3	32 (5.3%)	
이론 전체 합계	276	126	37	437 (72.2%)	
이론 없음	58	21	87	168 (27.8%)	
전체 합계	334	147	124	605	

표 5. 최근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방법(2007-2017)

연구방법	JTPE	RQES	QUEST	합계
양적연구	223(66.8%)	76(51.7%)	0	299(49.4%)
질적연구	75(22.4%)	44(30%)	0	119(19.6%)
문헌분석연구	19(5.7%)	15(10.2%)	124(100%)	158(26.1%)
혼합연구	17(5.1%)	12(8.1%)	0	29(4.8%)
합계	334	147	124	605

적.이론적 관점들을 소개하고 학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성격의 논문(position paper)을 발표하는 학술지라는 점에서 전체 논문이 문헌분석 연구로 이루어졌다. 셋째, 질적연구는 총 119편으로 19.6%를 차지

했으며, RQES, JTPE, QUEST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혼합연구는 총 29편으로 4.8%를 차지했으며, RQES, JTPE, QUEST 순이었다.

종합하면, RQES의 경우 양적연구의 전체의 50%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고, 나머지 50%정도를 질적연구, 문헌분석연구, 혼합연구가 차지하여 연구방법이 비교적 균형있게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JTPE의 경우는 양적연구의 비율(66.8%)이 질적연구(22.4%)의 3배 규모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혼합연구와 문헌분석의 경우도 각각 5%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QUEST는 학술지 특성상 문헌분석연구 방법만을 활용하고 있었다.

V.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

본 논문은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연구 영역 및 주제,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측면에서 시대별로 살펴보고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사점을 1) 연구영역의 명료화 및 연구주제의 다양화, 2) 연구이론 적용의 엄밀성, 3) 연구방법의 다양화 및 절차적 강화, 4) 연구경향의 지속적 점검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영역의 명료화 및 연구주제의 다양화

최신 스포츠교육학 연구영역의 명료화 및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북미 스포츠교육학의 연구경향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운동기능습득 중심의 연구에서 시대가 지날수록 연구주제 및 연구관점, 연구방법 등 전반적인 연구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다원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스포츠교육학에서도 새로운 학문 영역들과의 만남을 시도하며, 연구 영역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스포츠교육학회는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운동생리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등과 공동학

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학교체육에 한정된 학술적 이미지를 벗고자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학술지 세션을 구분하고 있다. 유정애(2012)는 체육학 페다고지(Kinesiology Pedagogy)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운동생리학교육, 스포츠심리학교육, 축구교육학, 태권도 페다고지 등과 같은 영역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최의창(2014)은 코칭분야에 주목하면서 코칭교육학을 스포츠교육학의 한 분야로 포섭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신복(2009)은 스포츠교육학의 연구흐름을 체육교육과정, 체육수업모형, 체육교사 및 학생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체육교육과정연구와 체육수업연구의 두 가지 연구흐름을 제시하였다(강신복, 200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교육과정 연구는 1) 교육과정분석, 2) 교육과정실행 및 실태, 3) 교육과정비교, 4) 교육과정 문서분석, 5) 교육과정모형개발, 6) 교사와 학생의 여섯 가지 주제로 나타났고, 체육수업연구는 1) 교사, 2) 교수행동 및 수업분석, 3) 학생, 4) 사회적 이슈, 5) 평가, 6) 시간변인 및 상호작용, 7) 이론정립, 8) 교수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국내 스포츠교육학의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며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나 이론적 및 철학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이 소수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인문적 체육교육, 코칭교육, 무용교육 등 특정주제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과학적 관점이나 양적연구, 청소년과 건강운동, 동기 등의 주제, 대상,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제한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한주, 손나래, 이태구, 2015; 정현우, 2017; 천승현, 김지현, 유경은, 김승재, 송용관, 2017). 따라서, 연구 영역을 보다 명료화하고 영역내의 다양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북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주제 및 연구영역이 국내 상황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다.

2. 연구이론 적용의 엄밀성

다양하고 적합한 이론적 틀에 근거한 엄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최근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증거기반 연구(evidence-based research)이다. 자료분석과 결과의 해석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이론적 틀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연구의 경우 이론적 틀을 충실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관해, 최의창(2003)은 스포츠 교육학의 토대가 되는 이론들을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모 학문과 연계하여 소개하며 이에 따른 연구관점을 실증적, 해석적, 비판적, 양적, 질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론의 중요성과 연구관점을 일반적 수준에서 강조하는데 그쳐, 연구이론의 엄밀성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최근 북미 스포츠교육학 학술지에 보고되는 대다수의 연구물들은 연구이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이론적 엄밀성에 기반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미에서 청소년의 비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때 학교체육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McKenzie를 비롯한 학자들은 공중보건 관점 및 이론에 기반하여 학교체육 수업이 중-고강도 신체활동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cKenzie & Lounsbury, 2013, 2014). 그리고, 이러한 이론에 기반한 증거기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효과 역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한다. 설사, 학교체육의 목적을 공중보건 이론에 기반한 중-고강도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실행 및 효과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는 학자라 하더라도, 또 다른 이론적 엄밀성, 즉, 구성주의 학습이론 및 개념변화 학습이론에 근거해서 학생의 능동적 지식구성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한다(Ennis, 2007, 2017).

결국, 이론적 엄밀성에 기반하지 않은 연구는 스포츠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기 어려우며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제

한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주제들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의 분석틀이 되는 이론적 배경의 깊이있는 이해를 통한 연구결과의 적용이 필요하다(Ennis, 2017).

3. 연구방법의 다양화 및 절차적 강화

연구방법의 다양화 및 절차적 강화가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연구목적에 맞게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 선정의 기준이 명확하고, 자료수집 및 분석이 절차에 맞춰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는 문화기술지를 비롯한 소수의 질적연구 패러다임에 갇힌 연구주제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김경오, 이규일, 2013). 질적연구는 체육교육 현상을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구결과와 파위가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질적연구 연구결과들은 최근 북미 스포츠교육학에서 강조되는 증거기반 체육수업의 효과 등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McKenzie & Lounsbury, 2013). 또한, 질적 연구에서 면담, 참여관찰, 문서 등과 같이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는 면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종합하면, 연구방법은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연구자의 편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방법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자료 수집, 분석, 및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걸러내고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양적연구 혹은 질적연구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문헌분석 연구의 경우에도 논의를 펼치는 근거가 되는 핵심 선행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적절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경향의 지속적 점검

국내외 스포츠교육학의 최신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스포츠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왔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는 그 학문을 대표하는 학술지의 최신 논문들을 통해 드러난다. 그동안 북미를 중심으로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다룬 연구들은 소수지만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교육학의 학문적 지식체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지도역할을 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 스포츠교육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다루는 논문이나 국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소개하거나 국내외 연구경향을 비교하는 논문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몇몇 소수 선행연구들조차도 분석 시점이 대체로 2000년대 중반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물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록 일부연구들은 국외의 스포츠교육학 동향 연구물, 대표적으로 Silverman & Skonie(1997)와 Graber(2001)등을 비교하며 그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분석시점이 1980-90년대로 한정되어 있으며,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이나 이론적 편향이 연구결과에 반영될 수도 있는 주관적 과제 도출이라는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최근 10년을 포함한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시대별로 분석함으로써 북미 스포츠교육학의 학문적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며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역시 북미중심의 스포츠교육학 연구 경향만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이나 국내의 최근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스포츠교육학 연구물들을 보고하고 있는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를 비롯해 2000년대 새롭게 등장한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와 Sport, Education and Society 등의 스포츠교육학 관련 학술지에서 질 높은 다양한 연구담론 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하지 못한 유럽이나 국내의 최신 스포츠교육학 연구 경향을 탐색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교육학의 연구경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비롯해 향후 연구경향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향후 국내 스포츠교육학의 연구영역 설정, 연구주제 선정, 연구관점 및 이론적 배경의 활용, 연구방법의 다양화 및 절차적 강화 등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신복(2003). 한국스포츠교육학의 연구동향과 향후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3), 1-28.
- 강신복(2009). 한국스포츠교육학 연구의 동향과 향후과제. 강신복(2009). **현대 스포츠교육학의 이해** (pp. 3-40). 서울: 레인보우북스.
- 강신복, 최의창(1991). 체육학문화 운동과 체육교과의 성격: 학문성 강조 체육교과교육 모형의 탐색.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논집**, 12(2), 1-11.
- 강신복, 최의창(1996). 스포츠교육학의 발전과 과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창설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체육학의 성과와 과제**. 81-105.
- 강신복, 최의창(1997). 스포츠교육학 연구의 발전과 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4(2), 29-54.
- 김경오, 이규일(2013). 체육학 질적연구의 다원주의적 접근 모색. **한국체육학회지**, 52(2), 251-264.
- 김문규, 윤명희(2001). 체육교육 연구동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1), 1-24.
- 김승재(2000). 한국스포츠교육학 연구의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7(2), 75-86.
- 신기철(2011). 스포츠교육학의 교육적 역할과 학문적 과제 -초등 예비교사교육에의 스포츠교육학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4), 19-38.
- 안양옥(1992). 스포츠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동향.

- 92국제스포츠학술대회 자료집. 389-396.
- 안양옥(1994). 체육의 정당화 개념으로서의 지식과 기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 1-10.
- 안양옥(2009). 초등체육교육(학)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과제. 강신복(2009). **현대 스포츠교육학의 이해** (pp. 43-72). 서울: 레인보우북스.
- 유정애(2012). 체육학 페다고지: 스포츠교육학의 또 다른 교육적 역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4), 1-17.
- 이한주, 손나래, 이태구(2015). 스포츠교육학 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 분석. **체육과학연구**, 26(3), 445-460.
- 장병권, 채창목, 김영식(2017). 키워드 네트워크(keyword network) 분석을 활용한 초등체육교육학 연구동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4), 165-179.
- 정현우(2017).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학교체육의 방향 및 역할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3), 1-16.
- 천승현, 김지현, 유경은, 김승재, 송용관(2017). 체육교사와 동료들에 의해 조성된 동기분위기가 학습자의 동기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1), 53-70.
- 최의창(2000). 체육교육의 역사적, 철학적 탐구: 현황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34(3), 181-191.
- 최의창(2003). **스포츠교육학**. 서울: 무지개사.
- 최의창(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의창(2014). **스포츠티칭교육학에서 스포츠코칭교육학으로: 한국스포츠교육연구의 재개념화와 그 시사점**. 2015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3-44.
- Anderson, W. G., & Barrete, G. T. (1978). What's going on in gym? Descriptive studies of physical education classes [monograph]. *Motor Skills: Theory into practice*, 81.
- Azzarito, L., & Kirk, D. (Eds.). (2013). *Pedagogies, physical culture, and visual methods*. New York: Routledge.
- Boyce, B. A., Lund, J., & O'Neil, K. (2015). PETE doctoral institutions: Programs, faculty, and doctoral studen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6(3), 311-318.
- Chen, A., & Zhu, W. (2001). Revisiting the assumptions for inferential statistical analyses: A conceptual guide. *Quest*, 53, 418-439.
- Corbin, C. B., & Le Masurier, G. C. (2014). *Fitness for life* (6th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Devis-Devis, J. (2006). Socially critical research perspectives in physical education. In D. Kirk, D. Macdonald, & M. O'Sullivan (2006). *The handbook of physical education*. (pp. 37-58). London: Sage.
- Ennis, C. D. (2006). Curriculum: Forming and reshaping the vision of physical education in a high need, low demand world of schools. *Quest*, 58, 41-59.
- Ennis, C. D. (2007). 2006. C. H. McCloy research lecture: Defining learning as conceptual change in physical education and physical activity setting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8, 138-150.
- Ennis, C. D. (2010). On their own: Preparing students for a lifetime.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81(5), 17-22.
- Ennis, C. D. (2011).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priorities: Evidence for education and skills. *Quest*, 63, 5-18.
- Ennis, C. D. (2015). Knowledge, transfer, and innovation in physical literacy curricula.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 4, 119-124.
- Ennis, C. D. (Ed.). (2017). *Routledge handbook of physical education pedagogies*. (ed). New York: Routledge.
- Ennis, C. D. (2017). Educating students for a lifetime of physical activity: Enhancing mindfulness, motivation, and meaning.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8(3), 241-250.
- Ennis, C. D., & Chen, A. (1995). Teachers' value orientations in urban and rural school setting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6, 41-50.
- Graber, K. (2001).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In V. Richardson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4th ed.). pp. 491-519. Washington, D. 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Griffin, P. S. (1985). Teachers' perceptions of and response

- to sex equity problems in a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gram.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6, 103-110.
- Griffey, D. C., & Housner, L. D. (1991). Differences between experienced and inexperienced teachers' planning decisions, interactions, student engagement, and instructional climat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2, 196-204.
- Hellison, D. (2011).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physical activity*,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Hemphill, M. A., Richards, A. R., Templin, T. J., & Blankenship, B. T. (2012). A content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from 1998 to 2008.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1(3), 279-298.
- Henry, F. M. (1964). Physical education: An academic discipline. *Proceedings of the 67th annual conference of NCPEAM*, pp. 6-9 [Reprinted in the *Journal of Health, Physical Education and Recreation*, 1964, 35, 32-33; 69].
- Kirk, D., Macdonald, D., & O'Sullivan, M. (Eds.). (2006). *The handbook of physical educ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Kulinna, P. H., Scrabis-Fletcher, K., Kodish, S., Phillips, S., & Silverman, S. (2009). A decade of research literature in physical education pedagogy.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8, 119-140.
- Lee, A. M., & Solmon, M. A. (2005). Pedagogy research through the years in RQ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6(2), S108-S121.
- Locke, L. F. (1989). Qualitative research as a form of scientific inquiry in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0, 1-20.
- Macdonald, D., Kirk, D., Metzler, M., Nilges, L. M., Schempp, P., & Wright, J. (2002). It's all very well, in theor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their applications in contemporary pedagogical research. *Quest*, 54, 133-156.
- McKenzie, T. L., & Lounsbury, M. A. (2013). Physical education teacher effectiveness in a public health context.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4(4), 419-430.
- McKenzie, T. L., & Lounsbury, M. A. (2014). The pill not taken: Revisiting physical education teacher effectiveness in a public health context.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5(3), 287-292.
- Metzler, M. (2011). *Instructional models for physical education* (3rd ed.). Scottsdale, AZ: Holcomb Hathaway.
- Mitchell, S. A., Oslin, J. L., & Griffin, L. L. (2005). *Teaching sport concepts and skills: A tactical games approach* (2n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Penny, D., & Evans, J. (1999). *Politics, policy, and practice in physical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 Placek, J. H., & Locke, L. F. (1986). Research on teaching physical education: New knowledge and cautious optimism.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7(4), 24-28.
- Rhoades, J. L., Woods, A. M., Daum, D. N., Ellison, D., & Trendowski, T. N. (2016). JTPE: A 30-year retrospective of published research.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5(1), 4-15.
- Rink, J. (2007). What knowledge is of most worth? Perspectives on kinesiology from pedagogy. *Quest*, 59(1), 100-110.
- Rink, J. (2012). The role of directors of comprehensive school physical activity programs. Part 1: Introductio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83(6), 28-29.
- Rink, J. (2013). Measuring teacher effectiveness i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4(4), 407-418.
- Rink, J. E., Werner, P. H., Hohn, R. D., Ward, D., & Timmermans, H. M. (1986). Differential effects of three teachers over a unit of instruc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7, 132-138.
- Rovegno, I. (1998). The development of in-service teachers' knowledge of a constructivist approach to physical education: Teaching beyond activitie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9,

- 147-162.
- Safrit, M. J. (Ed.). (1980). Fiftieth anniversary issu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1(1).
- Schempp, P. (1987).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Beyond the limits of natural science.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6(2), 111-121.
- Siedentop D., Hastie, P., & van der Mars, H. (2004). *Complete guide to sport education*.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ilverman, S. (1991).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62(4), 352-364.
- Silverman, S. (2005). An introduction to 75 years of the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76(2), S1-S4.
- Silverman, S., Kulinna, P. H., & Phillips, S. R. (2014). Physical education pedagogy faculty perceptions of journal quality.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3(1), 134-154.
- Silverman, S., & Manson, M. (2003). Research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A detailed investigation of focus, method, and analysi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2, 280-297.
- Silverman, S., & Skonie, R. (1997). Research on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An analysis of published research.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6, 300-311.
- Silverman, S. J., & Ennis, C. D. (Eds.). (2003). *Student learning in physical education: Applying research to enhance instruction*. (2n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Ward, P., & Ko, B. (2006). Publication trends i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5, 266-280.
- Zhu, W. (2013). 85 years later, RQES remains young, energized, innovative, and strong!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4(4), 405-406.

국문초록

학문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는 일은 그 학문의 지식구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적작업이다. 하지만, 최근 스포츠교육학의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시대별로 나누어 연구주제,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하고, 국내 스포츠교육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총 12편의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을 분석한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연구경향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최근 10년간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 분석을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된 JTPE, RQES, QUEST의 스포츠교육학 관련 연구 총 605편을 분석한 결과를 연구영역별 주제,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이 국내 스포츠교육학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북미 스포츠교육학, 연구경향, 연구주제,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논문투고일: 2018.09.30

논문심사일: 2018.10.15

심사완료일: 2018.11.20